수면의 질과 다음날 피로도의 상관관계

발표 목차

스몰 데이터 최종

1 서론 ●

길론 및 한계점

4 Q & A



주제선정 배경

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이 하루를 좌우한다.

우리 모두는 <mark>상쾌한 기상을</mark> 원한다.

질 좋은 수면이 필수!

어떻게 고품질의 수면을 경험할 수 있을까?

분석 목표



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, 어떤 요인들이 피로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자. 수집 요인 설명

integer

date

binomial

날짜

취침 전 휴대폰 사용 여부

마지막 식사 시간

알람 후 기상 시간

취침시각

취침 전 휴대폰 사용 시간

마지막 식사 강도

알람 횟수

운동여부

수면의 질

다음날 낮잠 여부

낮잠여부

운동시간

수면시간

카페인 섭취량(커피)

다음날 졸음 여부

운동강도

스트레스 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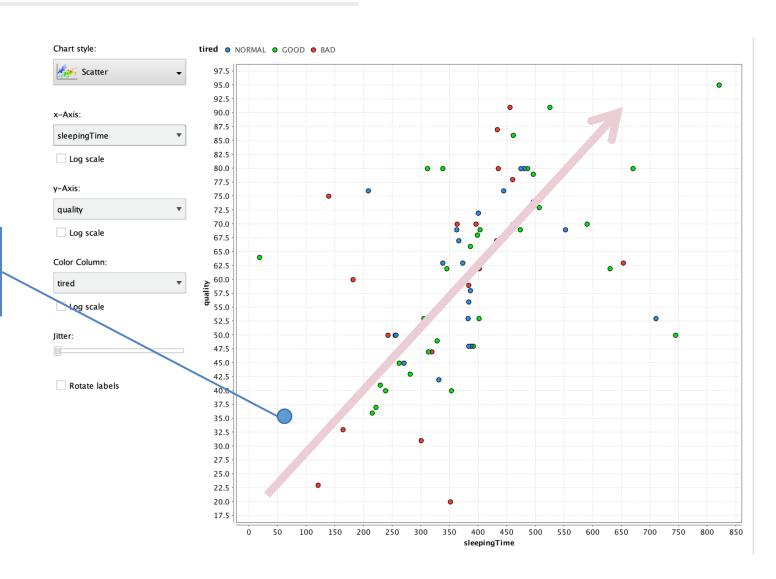
카페인 섭취량(그 외)

피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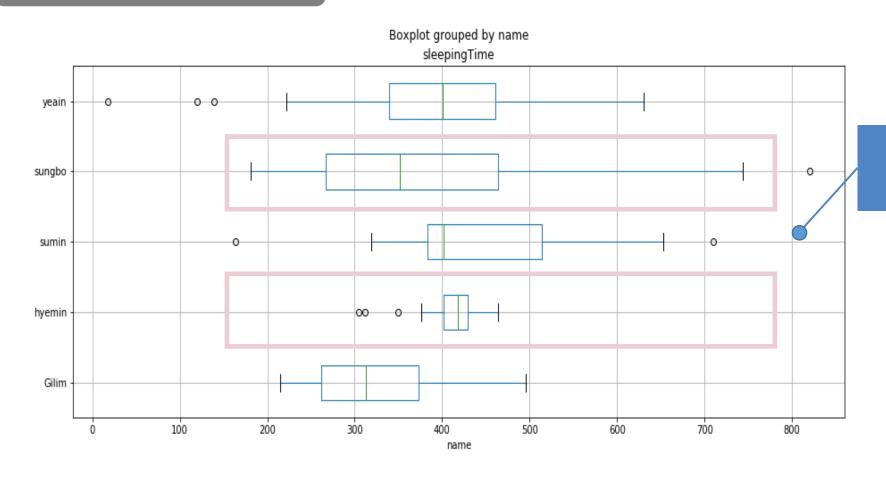
산점도

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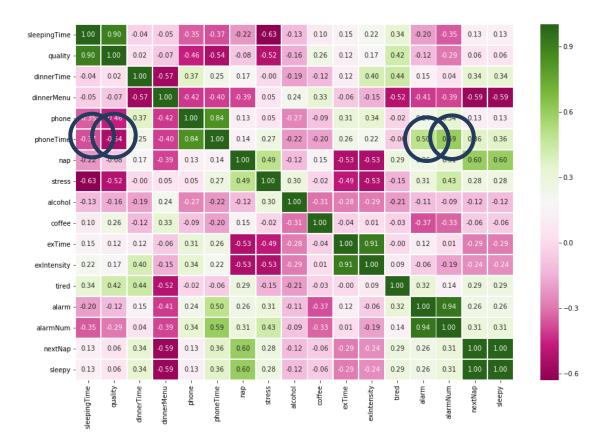
02 데이터분석 ▶2.1 대푯값

Box & Whisker plot



개인별 수면시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임

상관 분석(기림)



Positive Relation

1. 휴대폰 사용 시간과 알람 횟수 취침 전 휴대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기상 시 알람을 끄는 횟수가 높았다. (0.59)

Negative Relation

- 1. 휴대폰 사용시간과 수면시간 취침 전 휴대폰을 적게 사용할수록 오래 잔다. (-0.37)
- 2. 휴대폰 사용시간과 수면의 질 취침 전 휴대폰 사용시간이 적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다. (-0.54)

02 데이터분석

상관 분석(혜민)



Positive Relation

- 1. 수면의 질과 수면시간
- 수면시간이 길수록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. (0.86)
- 2. 피로도와 스트레스
-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다음날 피로도가 높다. (0.69)

Negative Relation

- 1. 수면의 질과 알람 횟수
-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알람을 끄는 횟수가 적다. (-0.57)
- 2. 수면의 질과 피로도
-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피로도가 낮다. (-0.52)

상관 분석(수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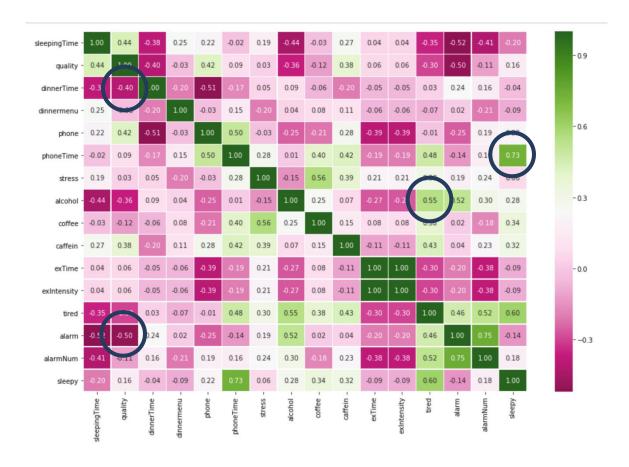
Positive Relation

- 1. 다음날 낮잠과 스트레스
-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다음날, 낮잠을 잔다. (0.40)
- 2. 다음날 낮잠과 음주
- 술을 마신 다음 날, 낮잠을 잔다. (0.61)
- 3. 다음날 낮잠, 수면시간
- 잠을 많이 잔 다음 날, 낮잠을 잘 확률이 높다. (0.55)

Negative Relation

1. 수면의 질과 다음날 낮잠 전날 수면의 질이 낮았던 다음날, 낮잠을 잔다. (-0.53)

상관 분석(예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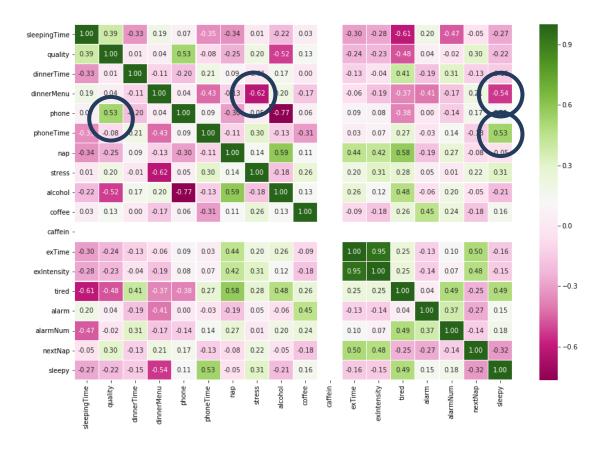
Positive Relation

- 1. 휴대폰 사용시간과 다음날 졸음 휴대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다음날 졸리다. (0.73)
- 2. **피로도와 음주** 전날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피로도가 높다. (0.55)

Negative Relation

- 1. 수면의 질과 알람이 울린 시간 수면의 질이 낮으면 알람이 울리고 일찍 깬다. (-0.50)
- 2. **수면의 질과 저녁 식사시간** 저녁 식사시간이 늦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다. (-0.40)

상관 분석(성보)



Positive Relation

- 1. 휴대폰 사용 시간과 수면의 질 자기 전 휴대폰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높다. (0.53)
- 2. 휴대폰 사용 시간과 졸음 휴대폰을 오래 사용할수록 다음날 졸리다. (0.53)

Negative Relation

- 1. 저녁식사 메뉴 강도와 졸음
- 저녁식사 메뉴 강도가 약할수록 다음날 졸림. (-0.54)
- 2. 스트레스와 저녁식사 메뉴 강도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저녁식사를 가볍게 한다. (-0.62)

수많은 도전들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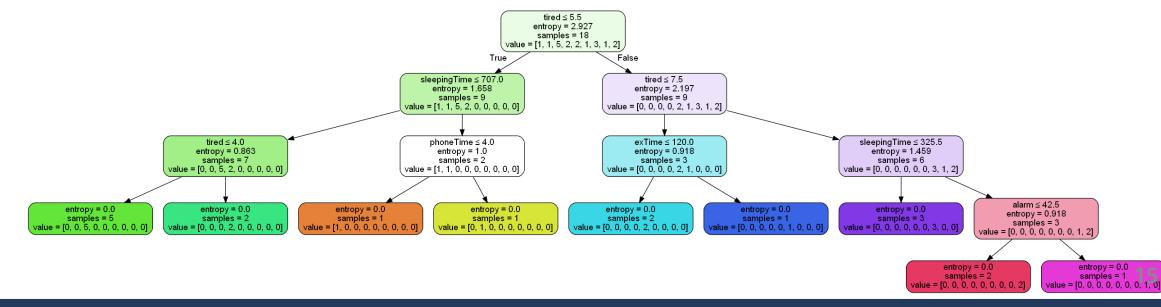
```
import sklearn.datasets as datasets
y=sungbo['tired']

from sklearn.tree import DecisionTreeClassifier
dtree=DecisionTreeClassifier(criterion="entropy", max_depth=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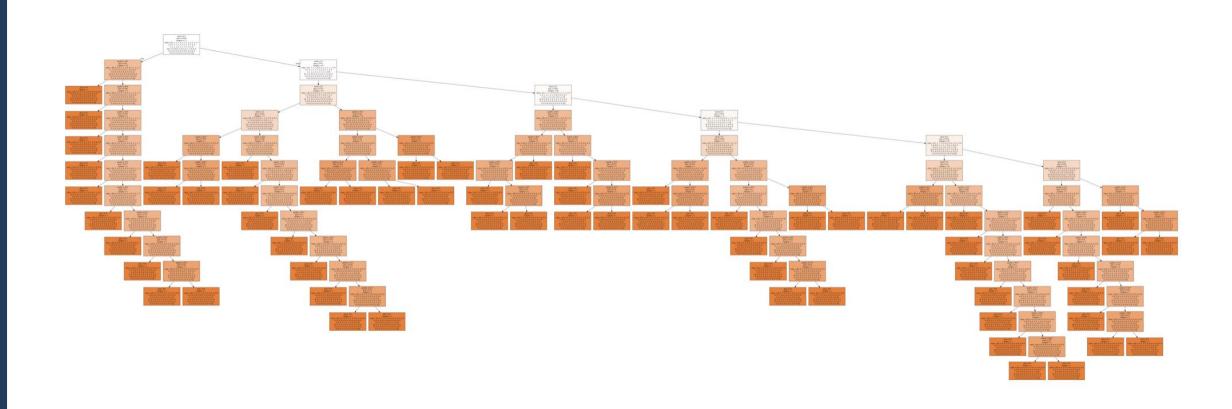
data = sungbo.drop(columns=['name', 'date'])

data = data.fillna(2)

dtree.fit(data,y)
```



수많은 도전들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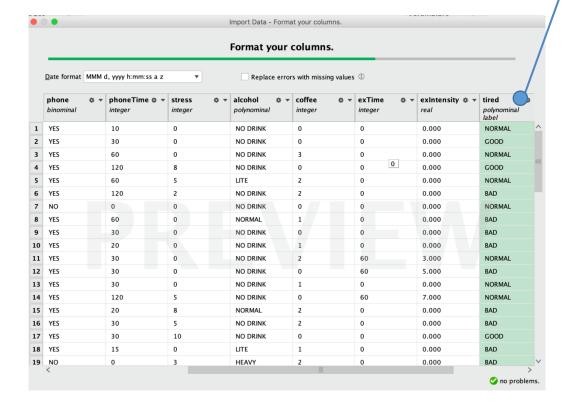


사용 도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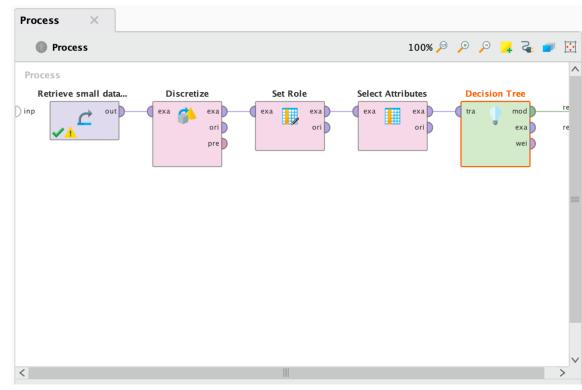


데이터 전처리, 머신 러닝, 예측모델 등의 개발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

모델링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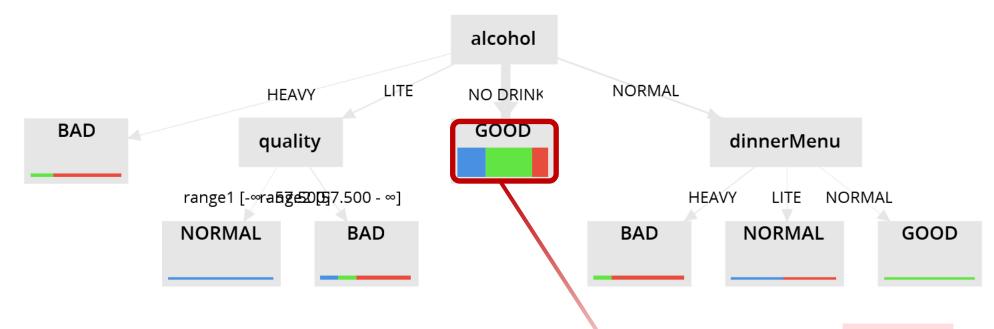


Label



- ✓ 피로도를 polynomial label로 설정
- ✓ 각각의 데이터를 integer, binomial 등으로 설정
- ✓ 데이터를 csv로 가져옴
- ✓ Maximal depth = 5, minimal leaf size = 2

모델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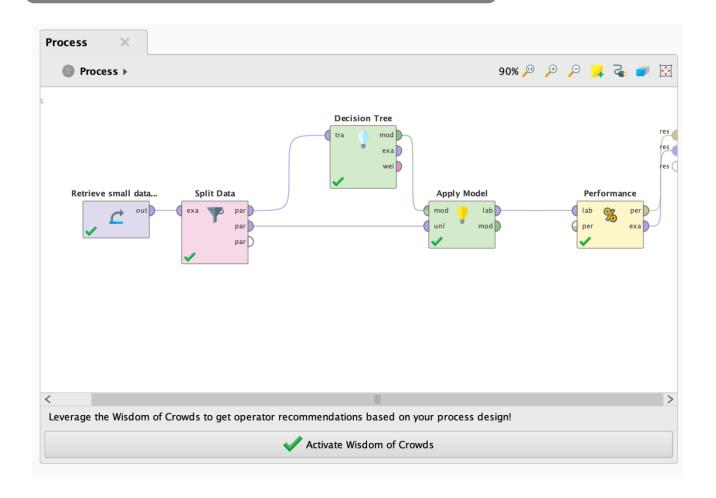


- ✓ 3가지의 범주 모두 비교적 균등하게 나옴
- ✓ Depth를 늘려도 별다른 차이 없음
- ✓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요인의 의해 피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

02 데이터분석

▶2.3 의사 결정 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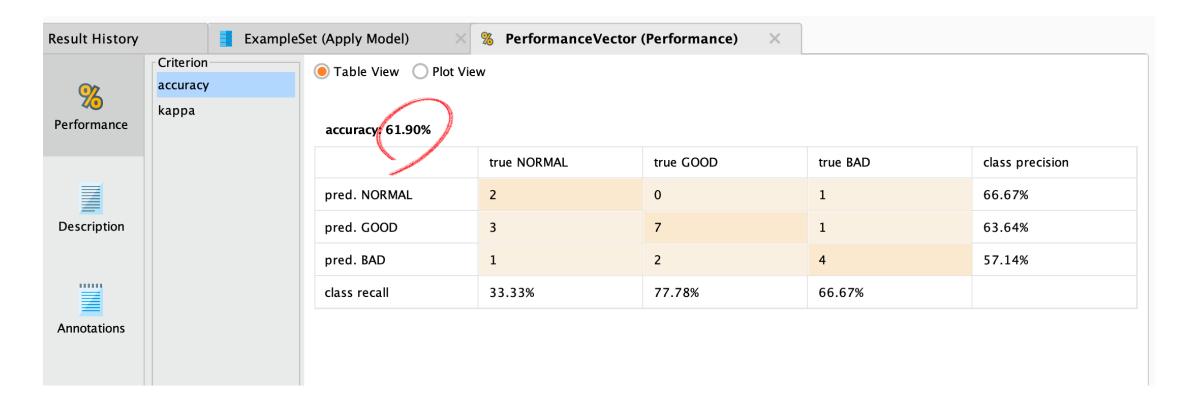
Test splits and validation



- ✓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
- ✓ Split data operator를 이용하여Training set 0.7 / test set을 0.3 지정
- ✓ Training set 은 Decision Tree에 전달
- ✓ Test set은 Apply Model 에 전달

02 데이터분석 ▶2.3 의사 결정 나무

Test splits and validation



Test Set 21개의 결과 Accuracy는 61.9%로 확인되었다.



한계점

1. 짧은 조사 기간

17일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로 상관관계 결과의 신뢰도가 낮음.

2. 수면의 질 측정의 정확성 부족

자신이 느낀 수면의 질과 애플리케이션이 측정해준 결과 차이가 컸음.

3. 개성 상실

데이터를 매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다 보니 개별적인 특이성을 고려하지 못했음.

- 질병 여부, 컨디션
- 유전적 요소

분석 결과 요약

sleepingTime -	1.00	0.50	-0.23	-0.03	0.15	-0.08	-0.19	-0.12	-0.31	-0.22	0.11	-0.15	-0.11	-0.14	0.25	0.04	-0.09	-0.04
quality -	0.50	1.00	-0.02	-0.05	0.22	0.09	-0.15	0.00	-0.29	-0.17	0.21	-0.13	-0.14	-0.00	0.07	0.09	0.04	0.02
dinnerTime -	-0.23	-0.02	1.00	-0.22	-0.09	0.15	-0.00	-0.03	0.08	-0.10	-0.02	-0.12	0.03	0.28	0.04	0.05	-0.12	-0.09
dinnerMenu -	-0.03	-0.05	-0.22	1.00	-0.21	-0.23	-0.15	-0.09	0.20	0.19	0.05	-0.04	-0.05	-0.17	-0.19	-0.24	-0.04	-0.26
phone -	0.15	0.22	-0.09	-0.21	1.00	0.30	0.03	0.01	-0.23	-0.32	0.11	0.03	-0.05	0.16	0.15	0.32	0.11	0.13
phoneTime -	-0.08	0.09	0.15	-0.23	0.30	1.00	-0.10	0.18	-0.06	-0.23	0.12	-0.01	-0.04	0.28	0.07	0.20	-0.11	0.26
nap -	-0.19	-0.15	-0.00	-0.15	0.03	-0.10	1.00	0.22	0.05	0.09	-0.09	0.26	-0.04	0.27	-0.09	0.21	0.27	0.14
stress -		0.00	-0.03	-0.09	0.01	0.18	0.22	1.00	0.12	0.05	0.22	0.00	-0.15	-0.03	-0.19	-0.06	0.23	0.17
alcohol -	-0.31	-0.29	0.08	0.20	-0.23	-0.06	0.05	0.12	1.00	-0.13	0.19	-0.05	-0.24	0.32	0.01	0.06	-0.05	-0.03
coffee -	-0.22		-0.10	0.19	-0.32	-0.23	0.09	0.05	-0.13	1.00	-0.03	0.08	0.35	-0.31	-0.26	-0.48	0.01	0.01
caffein -	0.11	0.21	-0.02	0.05	0.11	0.12	-0.09	0.22	0.19	-0.03	1.00	-0.08	-0.11	0.19	-0.03	0.02	-0.09	0.10
exTime -	-0.15	-0.13	-0.12	-0.04	0.03	-0.01	0.26	0.00	-0.05	0.08	-0.08	1.00	0.69	0.01	-0.07	0.03	0.32	-0.13
exIntensity -	-0.11	-0.14	0.03	-0.05	-0.05	-0.04	-0.04	-0.15	-0.24	0.35	-0.11	0.69	1.00	-0.22	-0.13	-0.26	0.07	-0.13
tired -	-0.14	-0.00	0.28	-0.17	0.16	0.28	0.27	-0.03	0.32	-0.31	0.19	0.01	-0.22	1.00	0.35	0.52	-0.03	0.26
alarm -	0.25	0.07	0.04	-0.19	0.15	0.07	-0.09	-0.19	0.01	-0.26	-0.03	-0.07	-0.13	0.35	1.00	0.57	-0.17	0.02
alarmNum -	0.04	0.09	0.05	-0.24	0.32	0.20	0.21	-0.06	0.06	-0.48	0.02	0.03	-0.26	0.52	0.57	1.00	0.01	0.13
nextNap -	-0.09	0.04	-0.12	-0.04	0.11	-0.11	0.27	0.23	-0.05	0.01	-0.09	0.32	0.07	-0.03	-0.17	0.01	1.00	0.16
sleepy -	-0.04	0.02	-0.09	-0.26	0.13	0.26	0.14	0.17	-0.03	0.01	0.10	-0.13	-0.13	0.26	0.02	0.13	0.16	1.00
	sleepingTime -	quality -	dinnerTime -	dinnerMenu -	- bhone -	phoneTime -	- deu	stress -	alcohol -	- coffee -	caffein -	exTime -	exIntensity -	tired -	alarm -	alarmNum -	nextNap -	sleepy -

1. 수면시간이 길수록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.

⁹ 2. 수면시간이 긴 다음 날 낮잠을 잘 확률이 높다.

3. 수면의 질이 높을 수록 다음날 아침, 알람을 끄는 횟수가 적다.

4.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수면의 질이 높다. (50%)

5.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가 낮을수록 수면의 질이 높다. (50%)

추후 연구 방향

- <mark>조사 기간</mark>을 늘린다.
- 개인의 습관과 생활 패턴을 분석한 후 좀 더 <mark>다양한 항목</mark>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본

다.*선행 연구들에선 수면의 질 저하 관련 요소로 대인관계,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인 느낌과 신체적 특징 등

구체적인 조건과 관련돼 연구한 것들이 많았음. (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)



데잇걸즈

모두의

숙면을 기원합니다!